

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- 배인호 초격차(超格差) 국어 제공

149/200

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005학년도 9월

[25~29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된 것 같아 ㉠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.

“우린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?”

“느이 고향이 어딘데?”

“몰라서 묻니? 개성쪽, 개풍군이야.”

“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?”

“그래도.”

“그래도라니?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애.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잡고 돈도 꺾 달랠라.”

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.

“그게 아니라 ㉡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.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?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 놓니?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?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.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.”

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.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댄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그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.

“호숙 에미 나 좀 보자.”

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.

“네 어머니.”

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.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. ㉢ 알맞은 온기와 악력(握力)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.

“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.”

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.

“네? 다 들으셨군요?”

“그래 마침 듣기 잘 했다. 그러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.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.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.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. ㉣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.”

“오빠처럼요?”

“그래 꼭 그대로.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?”

“잊다니요.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…….”

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, 나를 끌고 놓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.

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판의 발머리에 ㉤ 가매장했다.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㉥ 간 낱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.

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.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

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.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,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. 남편의 임종도 못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㉦ 비통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.

㉧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.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.

우린 묵묵히 뒤따랐다.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.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.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(恨)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.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.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.

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.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.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,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(分斷)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.

㉨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.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. 그 후 삼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(無化)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?

“너한테 미안하구나, 그렇지만 부탁한다.”

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.

아아,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.

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.

- 박완서, 엄마의 말뚝 2 -

25.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 [1점]

- ① 인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.
- ②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.
- ③ 감각적인 수사를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형상화하고 있다.
- ④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.
- ⑤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면서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.

26. ㉠~㉣ 중에서 ㉡의 심층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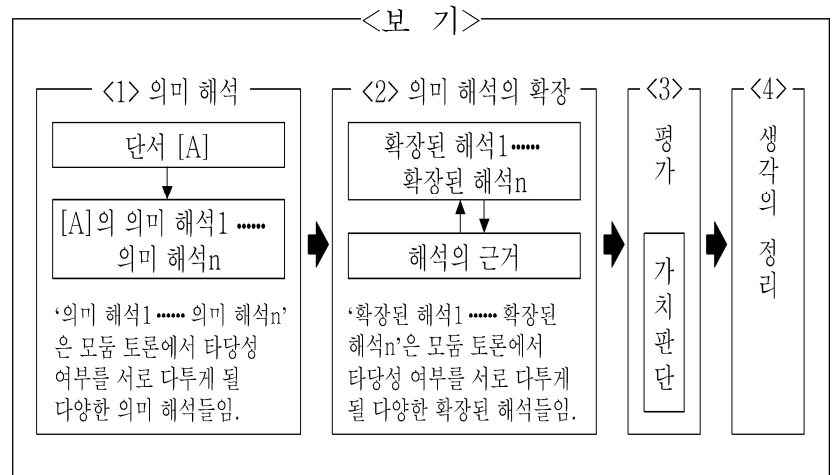
27. ㉠과 같이 말한 근거로 적절한 것은? [1점]

- ① 체험의 동질성 ② 성격의 동질성 ③ 신념의 동질성
④ 심리의 동질성 ⑤ 생사관(生死觀)의 동질성

28. ㉠과 ㉡을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‘나’는 묘를 쓰고 싶어 한다.
② ‘나’는 어머니의 당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.
③ ‘어머니’는 고향을 떠난 일을 후회하고 있다.
④ ‘어머니’는 죽은 아들을 떠나보낸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.
⑤ ‘어머니’와 ‘나’는 내심 오빠를 화장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.

29. 위 글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모듬 토론을 준비하려고 한다. [A]를 단서로 하여 정리한 생각 중에서 <보기>에 주어진 경로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은? [3점]



- ① [A]를 보면 ‘어머니’는 분단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. ‘어머니’는 분단 때문에 상처 받은 우리 민족 모두를 뜻하지. 한 역사학자는 분단을 우리 민족이 여전히 겪고 있는 ‘충성 없는 전쟁’이라고 말했어. 위 글은 ‘어머니’를 통해 아직도 그 전쟁터에서 살아가야 하는 민족의 한을 전형적으로 형상화한 대목이야.
- ② [A]를 보면 ‘어머니’는 분단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. ‘어머니’는 분단을 개인과 가족의 비극으로 축소시키는 소시민에 속하지. 소시민의 현실 인식이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주장된 바 있어. 위 글은 소시민이 그 점을 극복할 때에만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야.
- ③ [A]를 보면 ‘어머니’는 분단이라는 거대한 적과 대결하는 개인임을 알 수 있어. ‘어머니’라는 개인과 대결하는 분단이 거대한 적이라는 뜻이지. 그러나 분단이 아무리 거대한 적일지라도 개인은 그것과 대결하게 되지. 위 글은 거대한 적인 분단 상황과 맞서 싸우는 것이 개인이 가지게 될 태도라는 사실을 형상화한 대목이야.
- ④ [A]를 보면 ‘어머니’는 죽음으로써 분단과 대결하고 있어. 분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어서도 묘지에 묻히기를 거부하게 할 정도로,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지. 그러나 죽은 자가 결코 현실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 진실이지. 위 글은 분단의 극복을 관념적인 문제로 축소시킨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야.
- ⑤ [A]를 보면 ‘어머니’는 분단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인물로 나오지. 비극적 역사는 반드시 그 역사 속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지. 역사와 개인이 상호 작용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야. 위 글은 그 사실을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 제시하면서 있어야 할 올바른 우리 역사의 모습을 암시한 대목인 셈이지.